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81(80), 17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1독서

탈출 24,3-8

화답송

시편 116(114-115), 12-13, 15와 16ㄷ, 17-18(◎) 13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제2독서

히브 9, 11-15

부속가

〈21절부터 시작하여 짧게 할 수도 있다.〉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오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사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뉘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명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뉘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음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어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르 14, 12-16, 22-26

영성체송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새 계약의 예고와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경당

예루살렘의 시온산 성지에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경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결하신 새 계약의 장소로 의미가 깊은 곳이지요. 구약성경에는 “새 계약”이라는 용어가 한군데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레 31,31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예제키엘도 새로운 계약을 예고했지만, 그는 이를 “평화의 계약”(예제 34,25; 37,26)이라 칭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당시 백성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던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진실된 예언을 한 대가로 오히려 조국의 배반자, 거짓 예언자로 몰려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겪기도 합니다.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에 만연해 있던 시온 신학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으므로(2사무 7,16; 23,5; 시편 89,4-5), 성전과 다윗 왕실이 자리한 예루살렘은 무너질 리 없다는 믿음이지요. 백성들은 이런 시온 신학만 굳게 믿으며 시나이산 계약 준수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시나이산 계약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입니다(레위 26,14-39). 하지만 당시에는 시온 신학을 이용해 평화를 예고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주류를 이루었기에(예레 14,14-15; 예제 13,10) 백성은 소수에 지나지 않은 예레미야와 예제키엘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매한 군중이 되어 예언자를 핍박합니다. 가짜 뉴스가 성행하는 지금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 예언자임이 드러나지요.

그래도 백성이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언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들은 굴하지 않고 망국이 시나이산 계약 위반에 따른 필연적 징벌임을 계속 알렸고, 그 예고대로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제2의 탈출과 새 계약 체결을 예언하여 두려움에 빠진 백성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며 그들을 살게 합니다. 백성이 유배지에서 쫓겨났을 때 두 치르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다시 불러들여 회복해주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새 계약의 예고는 언제 실현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파스카 만찬상에서입니다(마르 14,24).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빵과 포도주로 새 계약을 맺으시며 시나이산 계약을 쇠신하셨습니다. ‘새 계약’, 곧 신약은 아브라함 계약을 토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나이산 계약 자체가 주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반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맺으신 신약의 기초가 되어주는 건 아브라함 계약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계약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다윗에게도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심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온 신학도 틀린 신학이 아니라 백성이 해석을 잘못된 신학일 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영원하고, 다윗 왕조도 예수님을 통해 영원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자리한 최후의 만찬 경당에서는 예수님께서 옛 계약을 쇠신하시며 신약을 세우신 그 역사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 자신을 초월하게 하는 사랑, 열린 세계의 원동력

섬처럼 자족하여 고립된 존재로 살려는 이들의 ‘폐쇄된 세계’에는 죽음이 지배하지만, 긴밀한 유대 맺기와 친교 그리고 형제애를 실천하는 이들의 ‘열린 세계’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87항 참조).

회칙 「모든 형제들」의 제3장은, 지난주에 소개한 목차대로, 사람들이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는 데 있어 시급히 요청되는 몇 가지 조건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에서 말하는 인간 존엄, 인간 공동체의 공동선 증진, 그리고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를 참조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회칙의 부제(副題)로 삼은 ‘형제애’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게 하고, ‘사회적 우애’는 보편적 공동선을 증진해 열린 세계 공동체를 건설하는 원동력(原動力)이 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인류는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의 힘입니다. 제3장의 ‘우리 자신을 넘어 나아가기’(88-94항)와 ‘언제나 더 열려 있는 사랑’(95-100항)은 인간을 ‘초월성과 유일성으로 열려 있게’(「간추린 사회교리」 130-134항 참조) 하는 ① 사랑의 힘과 ② 경계하고 회피해야 할 태도를 제안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으로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랑은 마음을 열어 다른 이들을 향하게 하고, 그들을 귀하고 가치 있으며 아름다운 존재로 포용하게 합니다. 또한 그들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찾게 하며, 공동의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건전하고 참된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망들 안에서, 우리 마음을 넓히고 풍요롭게 하는 다른 이들에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개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런 관계 맺기를 제발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개방된 형제애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적 우애의 열린 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삶에서 언제나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는 데 경계해야 할 태도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관계를 소규모 집단이나 가족으로만 축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性), 인종, 종교, 출생지, 피부색, 사회적 지위 같은 명분을 내세워 다른 이들과 대립하고, 이기심과 자기 보존의 폐쇄된 집단을 구축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거나 진리라 여기는 것을 집요하게 수호하거나 자기 힘을 돋보이게 하는 데 인생의 목표를 두는 태도는 단호하게 회피해야 합니다. ●

“사실 나에게서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서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필리 1,21-22)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고 2년 가까이 항암치료 중인 50대 환자를 방문한 날이었다. 환자와 똑 닮아서 누가 봐도 딸로 보이는 처녀가 환자의 옆에 붙어 앉아 환자의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딸의 극진한 간호를 받는 환자는 그동안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 봤고 이제는 임상실험 단계의 치료 말고는 할 것이 없으며 힘들었던 치료 여정에 관해 이야기해주었다.

환자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수술을 받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다행히 치료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의사를 만났다. 긴 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환자에게 이제 자기만 믿고 열심히 치료받으면 된다고 희망을 주었다. 환자는 의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의사만 믿고 성실하게 치료 과정을 견뎠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기대한 결과는 정반대로 흘렀다. 결국 환자는 생명의 은인이라 믿었던 의사에게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으니 서둘러 임상실험 단계의 치료라도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야 말았다.

그렇게 찾아간 다른 병원의 의사는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환자는 의사가 면전에서 삶에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에 속이 상했지만, 이제 ‘더는 어렵겠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에게 어려운 고백을 하나 했다. “사실 그동안 치료받느라 너무 힘이 들었어. 이제는 좀 편안하게 다음을 준비하면 안 될까?” 아들이 먼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기가 싫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온 가족이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끝날 것 같지 않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자, 이번에는 딸이 울먹이며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치료받으면 안 될까?” 그날의 고백 이후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해 나갔다고 한다.

“그때 따님의 말을 듣고 심정이 어떠셨어요?” 나는 환자의 마음을 함께 있는 딸에게도 들려주고 싶어 일부러 물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 하나 편히 죽자고 자식들에게 평생 한(恨)을 남길 뻔했구나.’ 그날부터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해 보기로 했어요. 제 아이들이 바라던 그대로요.” 딸의 커다란 눈망울에 반짝 눈물이 비쳤다.

가망 없어 보이는 치료에 지쳐 버렸던 환자는 아직 엄마의 온기 안에서 살고픈 딸의 간절함을 보고 다시 용기를 내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로마 15,1) 하셨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이 연약한 환자는 자신보다 더 연약한 딸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고생스럽기만 하던 그 희망을 다시 붙잡고 걷기 시작했다.

나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눈앞의 고통과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지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나도 환자의 딸처럼 무작정 매달려 본다. “주님, 이 환자와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



**교구
소식**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6/7(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예비신학생 모임

고1~2	6/9(주일) 13:30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중등부	6/16(주일) 10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청년 인문학 피정

일시 7/6(토) 15시 ~ 7(주일) 13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주제 현대를 사는 젊은 신앙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교재 다미앵 클레르제-귀르노, 「무기력한 날엔 아리스토텔레스」, 자음과모음, 2018

대상 20~30대

회비 6만원 (교재 미포함)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전시] 김남정 개인전 Flourishing, Then

일시 6/8(토)~21(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카카오톡 @g_pyeongwha

[가정사목부] 가톨릭성교육 - 한국틴스타워크숍(서울)

일시 6/22~7/13, 매주(토) 09:30~17시

장소 명동 영성센터 (명동대성당)

대상 가톨릭 성교육에 관심있는 부모, 청년

회비 18만원

문의 010-6651-2359 한국틴스타 사무국

031-850-1448 가정사목부

※ 의정부교구 신자 50% 지원 [선착순 15명]

신청 ▶



하느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 시복을 위한 은혜의 밤

일시 6/8(토) 17시

장소 황사영순교순례지 (영성관)

1부 - 한국 103위 순교성인, 124위 순교복자 호칭기도 (초봉헌, 안수)

2부 - 특강 (이미숙 아가다 수녀) / 3부 - 미사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전신자 성경 읽기

6/2(주일)~8(토) : 루카 12,22-40



6/29(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최양업 신부 선종 163주년 기념 담화

최양업 신부 선종 163주년을 맞이하여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담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의 날’을 지내며>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6/7(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탁월한 신앙인이신 성모님
강사: 김영철 신부(교구담당 및 4지구장)
문의: 010-2127-0032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피정

날짜: 7/17(수)~21(주일), 7/26(금)~30(화) [4박5일]
장소: 예수회 센터
문의: 02-3276-7794, ciskorprov@gmail.com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6/21(금)~29(토), 7/26(금)~8/3(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5(금)~7(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7/10~14, 7/22~26 [4박5일]
이나시오영신수련: 7/22~26 [4박5일]
여름청년피정(40세이하 남녀): 7/19~21 [2박3일]
사계절(여름)피정: 7/13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일일피정

일시: 6/9(주일) 09시 (미사 참석 가능. 매월 둘째 주일)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미아동 본원)
내용: 강의, 성체조배, 자기보기 훈련
회비: 3만원
문의: 010-9742-3842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학피정 - 원주교구

6/14(금)~16(주일) 강한수 신부(의정부교구)
7/19(금)~21(주일) 안소근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8/16(금)~18(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9/20(금)~22(주일) 남궁민 신부(원주교구)
문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바로로딸과 함께하는 젊은이피정

서울본원: 6/22(토)~23(주일), 6/26(수)~27(목)
경기도 여주: 7/13(토)~14(주일)
대상: 20~30대 미혼 여성
문의: 010-7251-1908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6/7,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묵피정: 6/21(금)~23(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매월 첫째오 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6/4(화), 7/2(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예수성심 신심 미사

일시: 6/7(금) 성시간 15시, 미사 16시
성시간 18:30, 미사 19:30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 16 (오금동 685)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한국관구 성당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파티마 평화의 성당

매달 첫째오 성모신심 피정: 7/6(토)
매주 목요일 피정: 이한택 주교 강의
매달 13일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 피정:
6/13(목), 박상희 신부 강의
시간: 10시~14시 미사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
생태순례: 6/22(토)~24(월), 7/19(금)~21(주일)
우도포함: 7/25(목)~28(주일), 8/2(금)~5(월)
8/8(목)~10(토), 8/14(수)~17(토)
추자도포함: 6/15(토)~18(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
일시: 6/3(월) 10시~16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중식 무료]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피정

예수님, 빛나는 오상의 신비는 무엇인가?
일시: 6/8(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피정: 6/21(금)~23(주일) [2박3일]
엄마와 딸(미혼)피정: 7/6(토)~7(주일)
영신수련 8일피정: 8/1(목)~10(토)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운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6/8(토) 10시, 풍동 성당
6/15(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8/29(목) 18시 ~ 9/1(주일) 16시
장소: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 김동일 신부(예수회)
회비: 30만원 (농협 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 7/1(월)~4(목)
우도해변포함: 7/12(금)~14(주일)
7/20(토)~22(월), 7/25(목)~28(주일)
8/1(목)~4(주일), 8/6(화)~8(목)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일시: 6/7(금) 18시 ~ 8(토) 17시
장소: 청주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이란, 황인숙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음악부)
문의: 043-213-9103, 010-5482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성가발성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생활 속의 이나시오 기도 모임 22기 모집

이나시오 영신수련 10개월 과정
오감활용으로 복음을 기도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전 첫모임: 6/17(월) 10시
오후 첫모임: 6/19(수) 20시
장소: 중산 성당 대성전 / 문의: 010-5570-6337

덕정 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가톨릭에서 세례받은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 엑셀, PPT)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마감: 6/16(주일)까지 (우편 접수, 전화문의 사절)
주소: (11452) 양주시 화합로 1457-17 덕정성당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예수회 센터 여름방학 특강 - 7월 개강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 (고대·중세)
이진현 신부 / 매주(월) 10시~12시 (현장만 가능)
월요피정(무료): 시편과 함께 기도하기
이근상 신부 / 매주(월) 14시~16시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 불완전한 영혼의
영적 여정, 최지원 수녀 / 매주(화) 10시~12시
※ 각 6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s.kr

2024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교육

일시: 6/28~7/19, 매주(금) 19:30~21:30 [4주]
주제: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이세라, 천진아
접수: 6/23까지 / 회비: 4만원
주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문의: 02-744-0840

사이버 성경학교 이벤트

내용: 복수과목 신청시 할인 & 수료시 25,000
포인트 지급(단과제외) & 특별통독 컨텐츠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평내 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가톨릭에서 세례받은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 엑셀, PPT)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마감: 6/9(주일)까지 (우편 접수, 전화문의 사절)
주소: (12222) 남양주시 경춘로 1256번길 17 평내 성당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원어 성경 기초반 - 히브리어, 그리스어

기간: 7월부터 1년간 / 매주(수) 19:30~21:30
회비: 30만원 x 4회 / 방법: zoom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분도출판사 편집부 신입 및 경력자 모집

고용형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지원자격: 단행본 편집자 - 신입 및 경력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문의: editor@bundobook.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2024 한국 살레시오 청년대회

일시: 6/28(금)~30(주일)
장소: 대전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대상: 가톨릭 청년 누구나
회비: 일반 8만원, 대학생 7만원
문의: 010-9630-1988, ksyd@sdb.kr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 (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2024년 제2회 김수환추기경 추모음악회

"모든 이를 위한(Pro Multis)" 음악회
일시: 6/27(목) 19:30
장소: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후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10-6476-3048 이예림
※ 전석 무료 (사전예약 필수)
문자 남겨주시면 사전예약 링크 발송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 아일랜드 (단기가능)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주관: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19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원지 (12일, 525만원)
9/16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
(동반자 100만원 할인)
9/23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2일, 585만원)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50만원 할인)
10/21 산티아고 107km 도보 순례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출발: 9/19(목), 비용: 599만원 (+2,0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심수녀회	6/15(토) 14시~17시	성심수녀회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오늘은 성체성사의 제정과 그 은총을 기념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본래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에 지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음 주일에 지냅니다. 1970년 이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정해진 이날은 ‘성체 축일’ ‘성체성사 축일’ ‘하느님 축일’ ‘지극히 고귀한 성사 축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대축일’처럼 다양하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5세기 초부터 성 목요일 저녁 미사 때 성체성사의 제정과 신약의 파스카를 기념해 왔습니다. 교부들은 일찍이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체에 대한 특별한 공경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12세기, 여러 신학자 사이에서 예수님이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신자들 사이에서는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이 더욱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몸과 피를 지닌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통해 성체성사의 신비가 더욱 강조되었고, 신자들은 제대 위에 모셔진 성체와 성체성사에 특별한 신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례 안에 이 대축일이 들어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건 리에주(Liège)의 성녀 율리아나(Juliana, 1192~1258)의 성체에 관한 신심과 체험 덕분입니다. 성녀는 10대 때인 1208년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환시를 경험했는데, 그건 한쪽 면이 어둡고 다른 한쪽은 빛이 나는 달의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210년경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달의 어두운 면은 성체성사를 공경하는 축일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이를 비밀로 간직했던 그는 수도원 원장이 된 후 용기를 내어 그 체험과 깨달음을 증언하였고, 주교좌 참사와 신학자들의 논의 끝에 1240년 율리아나의 환시는 하느님의 계시로 인정되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제1독서는 가해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일, 나해엔 시나이 산 아래에서 드린 계약의 제사, 다해엔 벨키체덕의 제사가 읽힙니다. 제2독서로는 가해에 1코린 10장, 나해엔 히브 9장, 다해엔 1코린 11장의 말씀이 봉독되고, 복음으로는 가해에 생명의 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나해엔 최후의 만찬, 다해엔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시간 전례(성무일도)는 성체성사의 신비에 관한 여러 측면을 잘 표현하는데, 특히 제2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이 그렇습니다: “오! 거룩한 잔 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며, 그분의 수난을 기념하고(과거) 은총으로 충만되며(현재) 후세 영광의 보증을 받는도다(미래). 알렐루야.”

오늘 대축일을 맞아 주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와 일치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미사 참례와 성체 조배를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도록 합시다. ☪